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21-1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임산부 배려석과 교통약자석에 관한 인식

- 임산부 배려석, 임산부 전용석 아냐
- 교통약자석은 경로우대석인가?

2025. 03. 19.

담당자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임산부 배려석과 교통약자석에 관한 인식

주요 결과

- ‘임산부 배려석’이란 임산부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2009년에 시내버스, 2013년 서울 지하철에 교통약자석과 별개로 설치한 좌석이다. 육안으로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자리 양보를 받지 못하거나 교통약자석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1980년, 서울 지하철 출범 당시 도입한 노약자석은 2005년부터 ‘교통약자석’으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했다. 이는 노인, 장애인, 임산부, 유아 동반자,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이동이 어려운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에 배치한 좌석이다. 두 배려석을 도입해 운영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2025년 1월 3일~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임산부 배려석과 교통약자석에 관한 공통된 인식과 차이를 확인했다.
- 임산부 배려석과 교통약자석의 필요성에 관해 대다수가 공감한다. 임산부 배려석(89%)과 교통약자석(91%)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다. 임산부(93%)와 교통약자(92%)가 모든 좌석에서 우선 이용권이 있다는 점에서, 배려석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임산부 배려석 현재 수준 유지 65%, 교통약자석 현재 수준 유지 74%).
- 배려석 이용 경험에는 차이가 있다. 교통약자가 아님에도 교통약자석을 이용한 응답자는 51%지만, 비임산부임에도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한 경우는 29%에 불과하다. 실제로 응답자의 49%는 평소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교통약자석은 필요한 사람이 오면 양보하면 된다는 의견이 48%이다. 출퇴근 시간 등 혼잡한 시간대에는 양보하면 된다는 인식이 강화되나, 그럼에도 임산부 배려석은 비워두어야 한다(39%)는 인식이 교통약자석(29%) 대비 높다.
- 임산부 배려석 정책이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한다고 보는 사람은 83%, 출산 장려 효과가 있다고 본 응답자도 60%이다. 반면, ‘남녀 갈등 조장(18%)’이나 ‘여성 혐오 유발(12%)’ 등 부정적인 인식에는 10~20%만이 동의하고 대다수는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

1

임산부 배려석과 교통약자석의 필요성

임산부 배려석과 교통약자석 모두 '필요해' 다만, 좌석 수는 더 늘릴 필요 없이 지금 수준 '적당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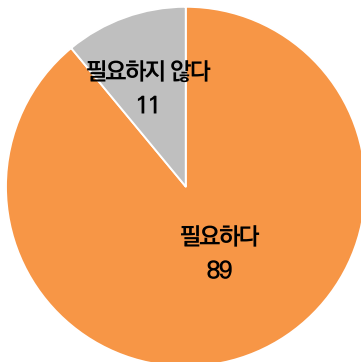
일부 지역이나 운송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하철에는 열차 칸마다 2석, 시내버스에는 1~2석의 임산부 배려석이 있다. 지하철에는 열차 칸마다 전동차 양쪽 끝에 각각 6석의 교통약자 지정석이, 시내버스에는 1~2석의 교통약자 배려석이 있다. 본 조사에서는 지하철 전동차 양쪽 끝에 배치한 교통약자 지정석, 시내버스 내 교통약자 배려석을 교통약자석으로 정의하고 배려석에 관한 인식을 확인했다.

10명 중 9명은 임산부 배려석과 교통약자석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임산부 배려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89%, 교통약자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91%로 대다수이다. 응답자의 90% 이상이 임산부(93%)와 교통약자(92%)는 모든 좌석에 우선 이용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임산부 배려석(65%)과 교통약자석(74%)을 늘리기보다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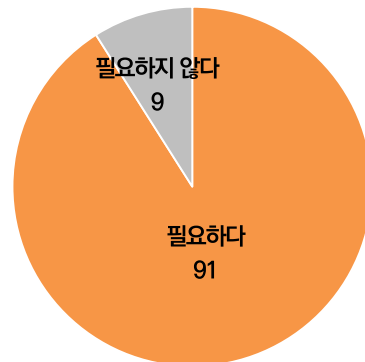
(단위: %)

10명 중 9명, 임산부 배려석과 교통약자석 '모두 필요해'

임산부 배려석



교통약자석



질문: (임산부 배려석) 대중교통 내에 교통약자석과 별개로 설치한 '임산부 배려석'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약자석) 대중교통 내 '교통약자석'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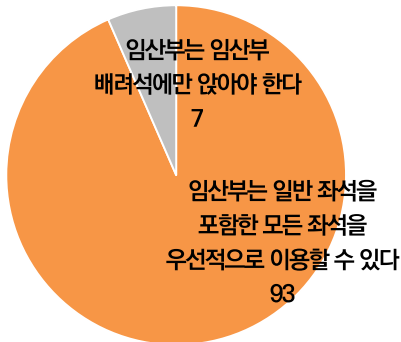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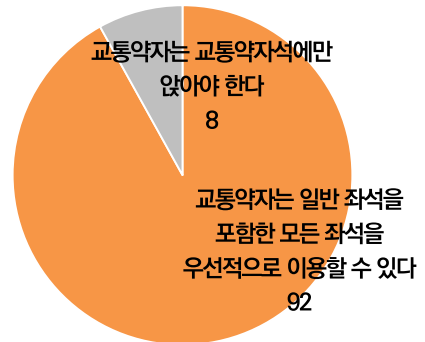
비고: 필요하다(매우+대체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전혀+필요하지 않다) 응답 제시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 3. ~ 1. 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단위: %)

교통약자는 배려석과 일반석을 포함한 모든 좌석 이용에 '우선권' 있어**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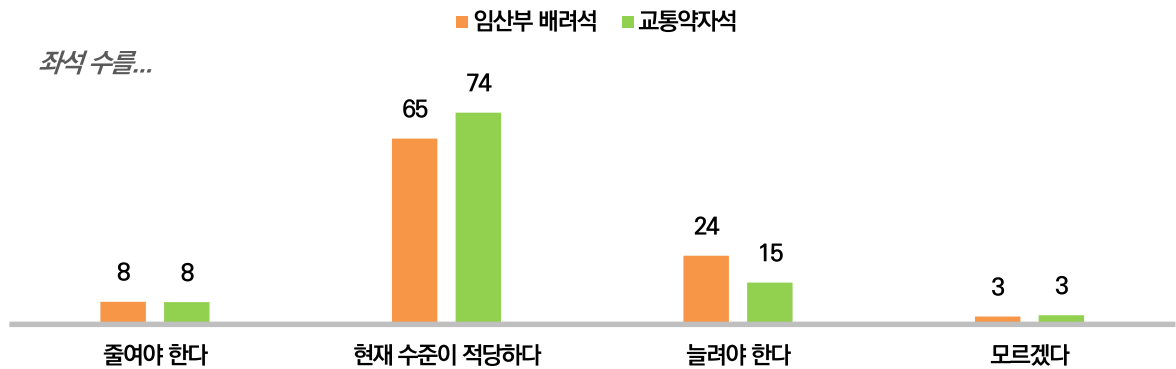
질문: 임산부/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 3. ~ 1. 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단위: %)

**임산부를 포함한 교통약자에게는 좌석 우선권 있으므로
임산부 배려석과 교통약자석 더 늘릴 필요 없다는 인식****좌석 수를...**질문: (임산부 배려석) 대중교통 내에 교통약자석과 별개로 설치한 '임산부 배려석'의 좌석 수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십니까?
(교통약자석) 대중교통 내 '교통약자석'의 좌석 수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 3. ~ 1. 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임신부 배려석과 교통약자석 이용 경험의 차이

교통약자석보다 임신부 배려석 이용에 더 큰 심리적 부담감 작용해 임산부 배려석은 비워둬야, 교통약자석은 양보하면 된다는 인식

두 배려석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는 가운데 이용 경험에는 차이가 있다.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을 제외한, 만 18~64세 응답자 중 절반(51%)은 교통약자가 아님에도 교통약자석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비임산부임에도 임신부 배려석을 이용한 적 있다고 답한 사람은 10명 중 3명(29%)뿐이다. 임신부 배려석을 이용하는 데 있어 심리적인 부담감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도로교통공사는 임신부 배려석 비워두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비워두라'는 슬로건을 내세운다.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임신부 배려석을 비워두어 감사하다는 내용의 방송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일명 '핑크카펫'은 임신부 배려석의 다른 이름으로, 분홍색 시트와 큼직한 심볼을 부착해 좌석을 특별히 구분한 것이다. 이로써 비임산부의 핑크카펫, 즉 임신부 배려석 이용이 일반 승객의 교통약자석 이용보다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

(단위: %)

교통약자석보다는 임신부 배려석 이용에 더 큰 '부담' 느껴

■ 경험 있다 ■ 경험 없다



질문: (임산부 배려석) 임신 중이 아닌데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교통약자석) 교통약자가 아니지만 '교통약자석'에 앉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응답자 수: 임신부 배려석 이용 경험 - 1,000명, 교통약자석 이용 경험 - 64세 이하 780명

조사기간: 2025. 1. 3. ~ 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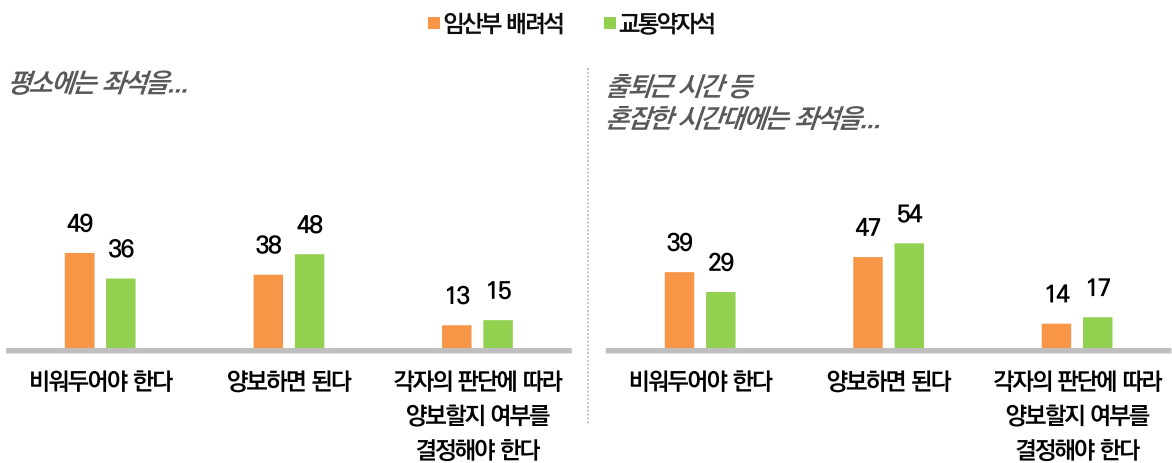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평소 임산부 배려석 비워둬야 해, 교통약자석은 양보하면 되는 자리

2명 중 1명(49%)은 육안으로 임산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평소'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교통약자석은 교통약자가 아니라도 자리에 앉아 있다가, 교통약자가 있으면 '양보하면 된다(48%)'는 인식이 절반에 달한다. 출퇴근 시간 등 '혼잡한 시간대'에는 두 배려석 모두 비워두기보다는 양보하면 된다는 인식이 강화된다. 특히 교통약자석은 양보하면 되는 좌석이라는 인식이 50%를 넘어선다(54%). 사람들은 교통약자석보다 임산부 배려석 이용에 더 큰 부담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단위: %)

'평소'에는 배려석 비워두기 → '혼잡한 시간대'에는 양보하면 된다는 인식 강화
어떤 상황에서도 임산부 배려석은 비워두어야 한다는 인식이 교통약자석 대비 높아



질문: (평소)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비워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잡한 시간대) 출퇴근 시간 등 혼잡한 시간대에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비워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고: 보기는 다음과 같이 제시함.

(임산부 배려석) 육안으로 임산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워두어야 한다/비임산부가 앉아 있다가, 임산부가 있으면 양보하면 된다/비임산부가 앉을 수 있으며, 배려에 대한 각자의 판단에 따라 양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통약자석) 교통약자가 교통약자석을 즉각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어야 한다/교통약자가 아니라도 자리에 앉아 있다가, 교통약자가 있으면 양보하면 된다/교통약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앉을 수 있고, 배려에 대한 각자의 판단에 따라 양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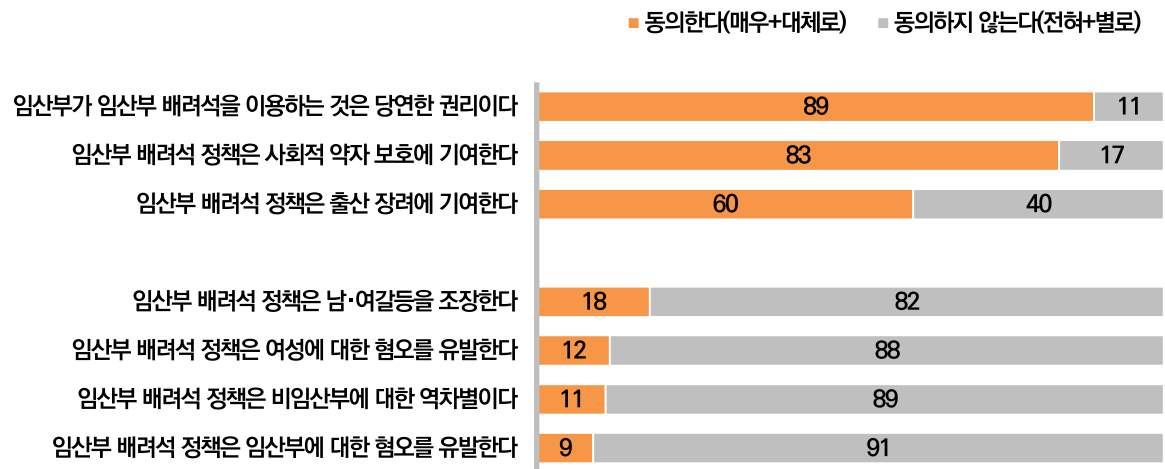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5. 1. 3. ~ 1. 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임산부 배려석 이용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눈에 띄는 좌석 디자인뿐만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임산부 배려석 운영 취지와 효과에 공감한다. '임산부가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89%)', '임산부 배려석 정책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한다(83%)'는 데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채 1명도 되지 않는 0.75명인 상황에서 임산부 배려석 정책이 출산 장려에 기여한다는 인식도 60%로 과반이다. 향간에 떠도는 임산부 배려석의 '남녀갈등 조장(18%)', '여성(12%)'과 '임산부(9%)'에 대한 혐오 유발, '비임산부에 대한 역차별(11%)'과 같은 주장에는 10명 중 1~2명만이 동의하고 8~90% 가량의 대다수는 동의하지 않는다. 2·30대 남성은 같은 세대 여성 대비 임산부 배려석의 역효과를 지적하는 의견이 조금 더 높기는 하나 다수의 의견은 아니며, 대다수가 도입 취지와 긍정적인 기대효과에 공감한다.

(단위: %)

임산부 배려석 도입 취지와 효과에 크게 공감해
임산부 배려석은 젠더 갈등과 여성 혐오 유발? 소수 의견일 뿐



모든 세대와 성별에서 임산부 배려석 도입 목적과 운영 효과에 공감해

(단위: %)

'동의한다' 응답	사례수 (명)	임산부가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임산부 배려석 정책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한다	임산부 배려석 정책은 출산 장려에 기여한다	임산부 배려석 정책은 남·여 갈등을 조장한다	임산부 배려석 정책은 여성에 대한 혐오를 유발한다	임산부 배려석 정책은 비임산부에 대한 역차별이다	임산부 배려석 정책은 임산부에 대한 혐오를 유발한다
전체	(1,000)	89	83	60	18	12	11	9
성별x연령								
남자_18-29세	(81)	82	68	41	27	18	18	12
여자_18-29세	(76)	95	87	49	16	9	9	6
남자_30대	(77)	96	87	58	30	24	16	20
여자_30대	(72)	92	85	47	24	17	14	15
남자_40대	(89)	78	76	60	15	16	16	9
여자_40대	(87)	90	84	50	22	15	14	12
남자_50대	(98)	89	89	69	18	10	8	9
여자_50대	(97)	89	86	61	12	8	7	9
남자_60대	(86)	86	83	73	9	2	4	1
여자_60대	(89)	93	91	73	16	8	7	4
남자_70세 이상	(62)	87	89	72	14	3	12	6
여자_70세 이상	(86)	92	76	62	18	11	9	6

질문: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 3. ~ 1. 6.

3

임산부 배려석과 교통약자석, 누구를 위한 자리인가?

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 전용 좌석 아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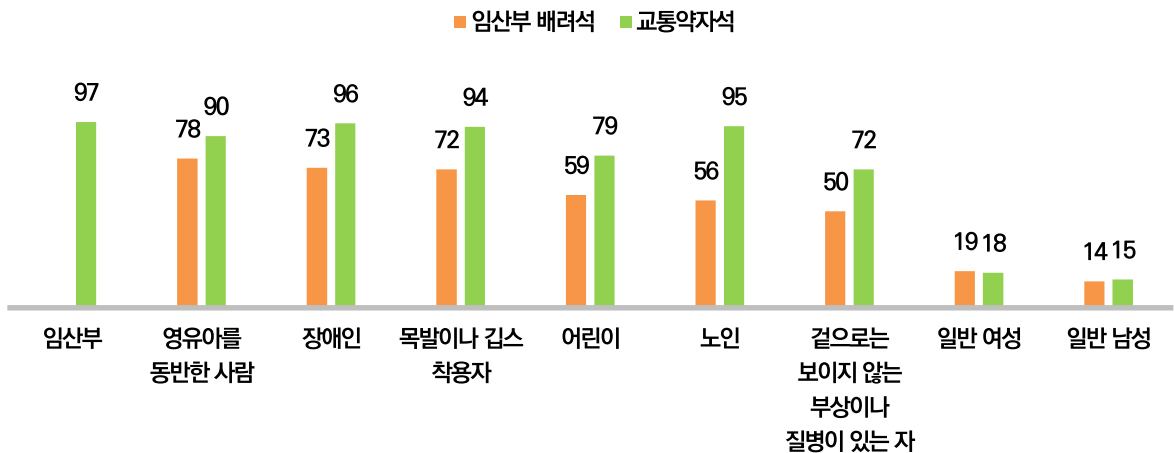
교통약자라면 누구나 임산부 배려석과 교통약자석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사람들은 교통약자라면 누구나 임산부 배려석과 교통약자석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유아 동반자(78%)', '장애인(73%)', '목발이나 깁스 착용자(72%)'는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70%를 상회한다. 이보다 적지만 '어린이(59%)'와 '노인(56%)'도 임산부가 아님에도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50%를 상회한다. 정리하면 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응답자 중 97%는 임산부 역시 교통약자석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단위: %)

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 전용 좌석 아냐

교통약자라면 누구나 임산부 배려석과 교통약자석 이용 가능해



질문: (임산부 배려석) '임산부 배려석'을 임산부 외에 다음 각각의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용할 수 없다고 보십니까?
(교통약자석) 지하철 혹은 시내버스 내 '교통약자석'을 다음 각각의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용할 수 없다고 보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 3. ~ 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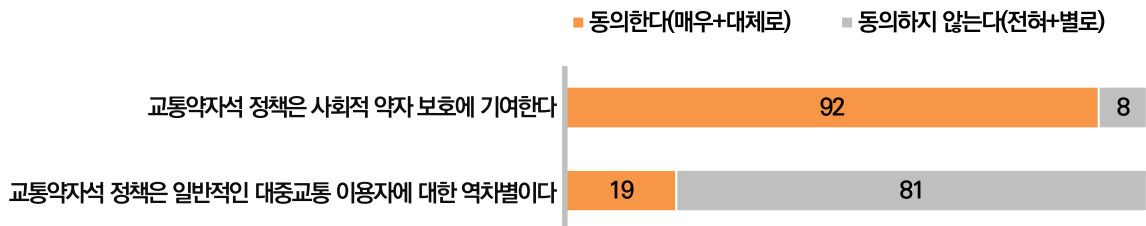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교통약자석은 경로우대석? 교통약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석 하지만 10명 중 7명 이상, ‘교통약자석’을 ‘경로우대석’으로 인식해 노인 자신도 교통약자석을 경로우대석으로 인식

교통약자석은 노인(95%)을 포함해 임산부(97%), 교통약자로 지정한 장애인(96%),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이동이 어려운 이들(목발이나 깁스 착용자 94%, 겉으로 보이지 않는 부상이나 질병 있는 자 72%), 영유아 동반자(90%)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인식한다. 이들 좌석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92%)’하고, ‘일반 승객에 대한 역차별은 아니(81%)’라는 인식이다. 교통약자석 도입 취지에 크게 공감하는 가운데, 10명 중 7명 이상(74%)은 ‘교통약자석은 노인에게 우선권이 있는 좌석’이라고 생각한다. 4명 중 1명(23%)은 교통약자석은 노인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데 ‘매우 동의’한다. 법적 노인 연령은 만 65세로, 65세 이상은 85%가 교통약자석의 주 이용층을 노인 자신이라고 지목한다. 앞서 교통약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대다수는, 그리고 고령층 스스로도 교통약자석을 경로우대석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단위: %)

교통약자석은 사회 약자 보호에 기여, 정책 취지에 크게 공감해



질문: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 3. ~ 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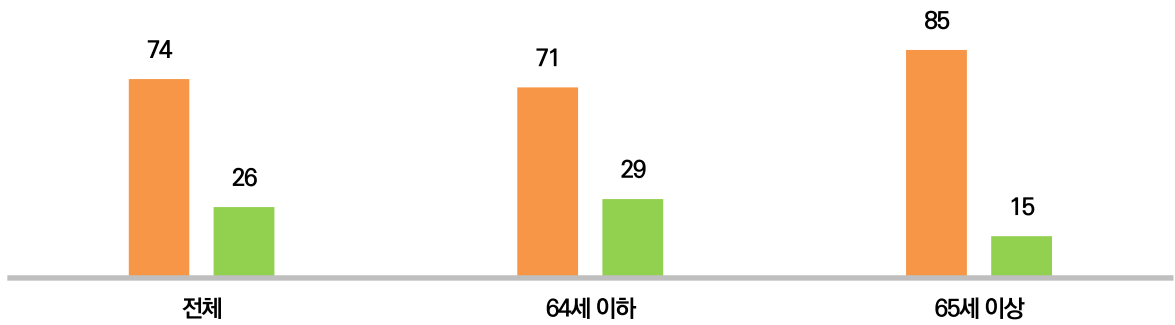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10명 중 7명 이상, 교통약자석은 경로우대석
노인 자신도 교통약자석을 경로우대석, 노약자석으로 인식하고 있어

(단위: %)

'교통약자석은 노인에게
우선권이 있는 좌석이다'

■ 동의한다(매우+대체로) ■ 동의하지 않는다(전혀+별로)



질문: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약자석은 노인에게 우선권이 있는 좌석이다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 3. ~ 1. 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을 도입한 지 10년, 그 이상이 흘렀다. 임신부 배려석은 임신부를, 교통약자석은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히 구분한 좌석이긴 하나, 사람들은 어떤 배려석이든 교통약자라면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이용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사실상 사람들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배려석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 본 조사를 통해 교통약자의 어려움에 다수가 공감하고 그 어떤 좌석이라도 우선권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향간에는 배려석이 특정 성별과 세대에 대한 혐오를 유발하고, 역차별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본 조사에서 사람들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보다는 교통약자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4년 12월 기준 약 96만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42,732명, 조사참여 1,893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2.3%, 참여대비 52.8%)
조사일시	• 2025년 1월 3일 ~ 1월 6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